

## 엔高대책, 「엔高대응긴급패키지」 발표

엔高 행진이 계속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엔高대책으로 환율안정, 해외투자자금 지원 등을 위한 1,000억달러 규모의 기금 창설을 중심으로 한 「엔高대응긴급패키지」를 발표, 엔高저지효과는 미지수이나 기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임.

- 엔高 행진이 계속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8월 24일 엔高대책으로 「엔高대응긴급패키지」를 발표했다.
- 이번 엔高대책의 기둥은 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,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창설 외에,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외환 매매포지션 보고의 의무화임.

### < 최근 엔화환율 추이 >



## □ 이번 대책의 골자와 기대효과

- 이번 대책은 지난주 해외시장에서 엔화가 한때 처음으로 76엔대 초반을 돌파하자 일본 재무성이 지난 주말에 급조,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다시 급등하는 경우 언제라도 대책을 실시하도록 한 것임.
- 당초 재정출동을 수반한 엔高 대책도 고려하는 안도 있었으나 관련 당국과의 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류한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시간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여짐.
- 이번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민간기업이 보유하는 엔화자금의 외화로의 전환을 촉진시켜 외환시장 안정에 이어지도록 하는 이른바 「마중물 효과」를 노리고 있음.
- 기업이 해외에서 기업매수 등에 사용하는 자금의 일부를 일본은행들을 통하여 저리로 융자해주고, 기업이 여분의 투자자금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 엔화를 팔아 달러 매입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그 핵심임.
- 구체적으로는 외국환특별회계에서 국제협력은행(JBIC)에 6개월 LIBOR금리로 융자, 국제협력은행은 저리자금을 이용하여 여타 민간은행과 함께 기업에 해외투자자금으로 융자해줌.
- 해외기업의 M&A로 500억달러, 자원에너지 확보 및 개발에 500억달러를 배정할 예정임. 이 외에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펀드 창설도 검토
- 정부자금이 마중물로 사용되어 민간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, 외환시장에서 대규모의 엔화매도·외화매입 수요가 발생하게 되어

엔高가 시정될 수 있게 됨. 또한 엔高메리트를 살려 해외 우량기업이나 자원을 저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음.

- 다만 민간금융기관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융자하지 않는 경우, 해외투자가 기대한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의 효과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으며, 1,000억달러 융자한도가 전부 사용될지 여부도 미지수임.

## □ 대책에 대한 평가

### ○ 엔高저지효과는 제한적

- 이번 대책은 엔화 민간자금의 달러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나, 엔高 저지효과는 미지수이며, 총리 교체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조한 교육지책이라는 견해가 강함.

### ○ 기업들은 대체로 환영

- 한편, 이번대책에 대하여 기업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. 이와 관련하여 1,000억달러의 기금은 해외투자자금으로 뿐만아니라, 국제금융불안의 확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음.
- 즉, 창설된 엔高대응기금이 일본기업들에게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것임.
- 대책의 효과 정도는 은행의 융자태도나 기업의 적극적인 전략에 달려있으나 급격한 엔高가 진행하고 있는 경우 즉효약은 아니라는 평가임.

## 〈 엔高대응긴급패키지 개요 〉

### 1. 목적

- 급격한 엔高진행에 대응, 민간 엔화자금의 외화 전환(円投) 촉진에 의한 외환시장 안정
- 장기적인 국부 증대

### 2. 기본 골격

- 외환특별회계의 달러자금을 국제협력은행을 경유하여 활용
- 공적부문에 의한 리스크머니 공급이나 정책용자에 의해 ①일본기업에 의한 해외기업 매수나 ②자원·에너지 확보 등을 촉진, 이를 민간부문의 円投의 마중물로 활용

「 해외기업매수 」

〈외환특별회계〉 → 〈JBIC〉 → 〈국내은행〉 → 〈일본기업〉 →

용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용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용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투자 「 자원에너지개발 」

### 3. 금액·금리

- 정책용자의 재원으로서 외환특별회계로부터 국제협력은행에 대하여 최대 1,000억 달러를 6개월 LIBOR금리로 용자
- 국제협력은행으로부터 총 1,500억엔 규모를 출자

### 4. 기간

- 1년간 한시적 운용

### 5. 구체적인 용도/방안

- ① M&A촉진
  - 국내 은행에 크레디트라인 공여
  - 산업혁신기구와의 연대
- ② 자원·에너지 확보·개발 촉진
- ③ 중소기업의 수출 등에 지원

## ○ 기업의 외환 포지션 보고의무화는 외화거래에 걸림돌

-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 포지션 보고는 현행 「외국환 및 외국무역법(외환법)」에 의거한 조치로서, 1998년 외환법 개정 이래 처음임.
- 시장관계자들사이에서는 외환 포지션을 매일 보고하게 되어 외환 매매 거래가 불편하게 된 한편, 해외시장에서의 거래참가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음.